

# 류시화 시의 대중문학적 속성\*

유성호\*\*

1. 시와 대중성
2. 류시화 문학의 의사 종교성
3. '사랑의 시학'의 대중적 속성
4. 대중문학과 류시화

## 국문요약

류시화 시의 대중성을 떠받치는 축은 '의사 종교성'과 '사랑의 시학'이다. 그는 종교적 구도와 시적 아우라를 결합해내면서, 복합성보다는 단순성, 갈등보다는 화해, 부정적 의식보다는 긍정적 의식을 강조한다. 그래서 갈등을 유발할 수 있는 상황을 배경으로 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사회적으로 갱신하려 하기보다는 의지나 시선의 변화를 통해 문제를 단순하고 명료하게 그것도 내면적으로 해결할 것을 강조한다. 그만큼 류시화의 언어는 구체성보다는 원초적 친화와 신성한 것으로의 초월을 욕망하는 의사 종교성의 언어이다. 명료하고 투명한 역리(逆理)를 통해 병리적 상황을 진단해주고 그것을 위무하고 치유하고자 하는 그의 언어는, 자신도 이미 해답을 알고는 있지만 큰 타자에게 그것을 확인받고 동시에 위안 받으려는 대중들의 보편적인 종교적 욕망과 친밀하게 부합한다. 또 하나, 류시화 대중성의 비밀은 사랑의 시학에 깃들여 있다. 헌신과

---

\* 이 논문은 2012년 한양대학교 교내연구비 지원으로 연구되었음(HY-2012-G).

\*\* 한양대학교 국문과 교수

소멸로서의 사랑에 대한 강한 향수가 그러한 대중적 흡인력을 구성한다. 류시화의 사랑 시편들은 대부분의 대중문학들이 견지하는 가벼움과 교양물들이 지니는 무거움 사이를 곡예하듯 아슬아슬한 균형을 유지하며 통과한다. 이후 펼쳐지는 그의 대부분의 베스트셀러 목록들은 한결같이 이러한 연애시의 문법과 속성을 고스란히 함유하고 있고 또 그것을 심미적으로 복제한다. 이러한 류시화의 사랑의 시학 역시 사적(私的) 차원의 연애에서 종교적 차원의 명상과 초월로 한결같이 몸을 바꾼다. 그 점에서 류시화 시편은 '시적 언어'가 아니라 '종교적 언어'의 결실이다.

(주제어 : 류시화, 의사 종교성, 사랑, 대중성, 종교적 언어)

## 1. 시와 대중성

우리 문단이나 학계에서 이른바 '대중문학'이라는 명칭에 포괄되는 일군의 작가와 작품과 현상들에 대한 평가는 그리 호의적이지 않다. 그 까닭은 우선 대중문학이 가지고 있는 상업성이나 통속성 같은 외관에서 연유한다. 대부분의 연구자들은 일관된 침묵으로 대중문학을 외면하고 있는데, 이는 아직도 대중문학이 학술적 조명을 받기에는 적합하지 못하다는 불신과 냉소가 연구자들의 심층 심리에 깊이 드리워져 있기 때문일 것이다. 이처럼 대중문학에 대한 학계의 연구 성과와 대중의 호응도는 싸늘하게 반비례하고 있다. 독자에게 호감을 주는 작품들이 비평가들에게는 외면당하고 있는 것이 보편적 진실인 셈이다. 그러나 이렇듯 척박한 연구 풍토에도 불구하고, 최근 대중문학에 대한 연구는 결코 경시할 수 없는 열정과 논리를 축적해가고 있다. 특정 작품들에 대한 소재주의적 논의로부터 시작하여 그것은 이제 '대중문학'이라고 명명되고

있는 여러 문학적 현상들에 대해 논리적이고 미학적인 시각을 마련하는 방향으로 점차 나아가고 있다. 이러한 연구의 진전에 따라 최근 '대중문학' 연구는 일정한 개념적 공유와 개방적 관점의 정립을 요청받고 있다. 다시 말하면 '대중문학'이라는 명칭을 상정할 때, 거기서 '대중'이 뜻하는 범주, 그때 일컬어지는 '대중성'의 함의, 그리고 궁극적으로 '대중문학'이 가지는 범주와 그에 시각에 관한 것 등에 대한 논리적 해명을 요청받고 있는 것이다.

이제까지 '대중문학'은 두 갈래의 개념 정의를 받아왔다. 그 하나는 개인주의적 문학 내지 자아 중심적 문학의 대립 개념이며, 다른 하나는 순수문학 혹은 본격문학의 대립 개념이다.<sup>1)</sup> 그런 면에서 '대중문학'은 '고급문학/민중문학/엘리트문학/순문학/본격문학/순수문학' 등속의 대타적인 개념을 염두에 둔 상대적 용어라고 할 수 있다. 그 중에서 '대중문학'을 가리켜, 저급하고 통속적이며 대중추수적인 문학 일체를 포괄하는 언어적 실체라고 정의하는 것은 엄밀히 말해 실체를 규정하는 '정의'가 아니라 오히려 실체를 은폐하고 관념화하는 비사실적 언술에 지나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 같은 정의에는 '저급/고급'의 면밀한 기준이라든가, 통속성의 개념, 또는 '대중'의 역사적, 논리적 함의가 대부분 빠져 있기 때문이다. 그와 마찬가지로 '민중문학/대중문학'이라는 대립적 관점 역시 그리 유용하지 못하다. 이때 비속성과 반(反)예술성으로 특징지어지는 대중문학은, 민중 문학적 관점에서 보면 하위문학이 되며, 지배계급의 문화를 지향하고, 보수적이며, 체제 옹호적이며, 향락과 퇴폐 성향을 가지며, 무국적성애다가 대량생산과 공급으로 인한 천민성을 지니며, 관주도형 체제기구를 통해 공급과 매개가 이루어지는 증산층과 지배계급

1) 천이두, 「대중문학의 성격과 기능」, 대중문학연구회 편, 『대중문학이란 무엇인가』, 평민사, 1995. 32쪽.

의 문학이 된다. 이 같은 시각은 그 비판의 날카로움에도 불구하고 실제 '대중문학'의 폭넓은 함의에 비추어볼 때, 대부분 과녁을 빗나간 것이다. 이러한 민중적 관점을 견지할 경우, 대중문학은 대중들로 하여금 정치적 무관심과 경제적 상호약탈주의, 사회적 무감각 현상에 빠지게 만들었으며, 대중 개체는 자동·획일·표준화를 추구하는 대중 언론매체의 영향으로 개성이 없고 규격화해버린 기계의 부속품으로 변모한 사실에 대해 어떤 비판적 시각도 제공하지 못하며, 오히려 그러한 상황에 일조하는 문학으로 전락하게 된다. 따라서 우리는 '반(反)역사성'으로 대중문학에 대해 비판하는 시각의 유효성을 일정 부분 유지하되, 또한 지배 계급에 대한 해체적 시각을 반영한 대항 헤게모니의 구축이라는 긍정적 시각 역시 견지하는 균형 감각을 지녀야 한다. 이처럼 대중문학은 본격 문학 혹은 순수문학의 항구적 타자로서, 그 동안 본격적인 미학적 논의의 대상이 못 되었다. 이러한 점을 반성하면서 우리는 바야흐로 대중들이 예술과 미학의 창조자이자 수용자인 첨단 시대를 살아가는 이들에게 '대중문학'에 대해 열린 마음을 가져야 할 것이다. 이러한 관점을 가지고 우리는 최근 우리가 경험한 서정시에서의 대중적 성격을 분석해야 한다. 대개 문학 시장에서의 '베스트셀러'라는 것은 향유 장편소설이나 에세이 혹은 교양물이기 마련이다. 그러나 아주 예외적으로 시집의 경우에도 폭발적인 대중적 전파력과 구매력을 띤 경우가 있다.<sup>2)</sup>

우리가 서정시를 쓰고 읽는 것은, 그 자체로 커다란 우주적 진실이나 역사적 흐름에 순간적인 동참을 하는 일일 뿐만 아니라, 개인적 차원에서 보더라도 그것이 자신의 관념과 생각에 새로운 탄력과 윤기를 부여하는 신생(新生)의 작업이다. 그 동참과 신생의 감각은, 일정한 지속성을 가지고 삶을 규율한다기보다는, 우리 삶의 나날이 가지는 무의미성

2) 유성호, 『대중문학 연구의 과제와 전망』, 『한국문학논총』 25집, 한국문학회, 1999. 참조.

과 순환성에 일종의 인지적, 정서적 충격을 가함으로써 자신을 반성적으로 바라보고 생각하고 치유해갈 수 있는 창조적 에너지를 부여하는데 그 의미가 있다. 이것이 서정시의 가장 보편적이고, 또 가장 절실한 존재 이유일 것이다. 그런데 ‘대중적 서정시’의 경우는 대부분, 이러한 정서적, 인지적 충격 중에서 사랑이나 그리움, 이별의 아픔, 인생론적 긍정, 생의 희망, 사소한 깨달음과 공감, 서정적 주체의 내면에서 이루어지는 명상의 언어들이 그 내용의 주를 이룬다. 이는 주로 소설에서 성(性)이나 폭력, 추리, 멜로, 영웅담 등이 대중성의 핵심이 되는 것과 사뭇 대비되는 것이다. 이러한 ‘대중적 서정시’의 덕목 안에는 세계를 단순화하는 긍정적 정서가 우세하며, 설사 시인의 정서가 갈등과 모순의 상황에 처해 있더라도 그것을 인식하거나 극복하려는 시인의 의지나 정서는 비교적 단일하고도 명료한 지향을 내비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따라서 ‘대중적 서정시’는 많은 대중들에게 복잡성보다는 단순성, 갈등보다는 화해, 부정적 의식보다는 긍정적 의식을 부여한다. 그래서 서정시의 주제적 양상은 사랑(그리움)과 삶에 대한 긍정(희망) 그리고 명상이나 깨달음을 통한 교양주의가 주종을 이룬다. 이는 앞서 말한 단순성, 화해, 긍정 지향의 성격을 아우른다. 그 중에서 가장 즐겨 채택되는 주제는 단연 ‘사랑’이다. 원래 ‘사랑’이라는 것은 정서의 영역에서 발생하는 것이지만, 그 나름의 고유한 행위 양식을 통해 자신을 구체화하는 특성을 지닌다. 물론 ‘사랑’ 역시 인간이 갖는 고유한 욕망의 한 형식이다. 또한 근본적으로 충족 불가능한 것이 인간의 욕망이라는 점에서 생각해 보면, 그것은 우리의 일상과 감각을 엮어매고 있는 자기 모순적 파토스일 뿐이다.

그러나 이러한 복합적이고 자기 모순적인 사랑을 정서 및 이야기의 차원에서 다루고 그것을 주음(主音)으로 삼는 것이 대중적 서정시가 구

축하는 세계는 아니다. 왜냐하면 대중적 서정시에 나타나는 사랑은 매우 명료하고 단순한 지향성 곧 절대적 가치를 갖기 때문이다. 그것은 애절한 사랑(그 안에는 '아픔'은 있지만 '갈등'은 없다), 맹목에 가까운 그리움, 그리고 희생적인 자기 헌신 등으로 나타나는 모노크롬의 세계이다. 그 다음으로 많이 나타나는 주제는 삶에 대한 따스한 긍정 또는 희망이다. 비록 현재는 고통스럽고 누추하다 하더라도 그것을 극복하고 새로운 세계가 열릴 것이라는 부추김과 위안의 미학이 가장 지배적인 주제로 드러난다. 마지막으로 대중적 서정시에서 줄곧 나타나는 주제는 명상을 통한 깨달음의 세계이다. 이는 독자들의 교양 욕구를 충족시키면서 화해의 세계관을 형성하는데, 대중들에게 의사 교육적(pseudo-educational) 효과를 행하는 부분이다. 이러한 주제들은 세계의 복잡성과 갈등의 드라마보다는, 명료하고 투명한 정서적 지향을 통해 독자들에게 동일화의 체험을 부여하는 공통점이 있다. 독자들은 이러한 시들을 통해 위무 받고 치유 받으며 폭 넓은 보편적 공감을 형성하는 것이다. 그러나 “홍수가 나면 먹을 물이 귀하다”는 말이 있지 않은가. 최근 범람하는 감각 지향의 문학들에서 사람들이 ‘먹을 물’을 구하는 것은 쉽지 않다. 이미지의 친숙성(intimacy)을 끝없이 재생산하면서 그것을 광범위한 구매로 이어지게 하는 광고 효과를 통해 대중 속으로 파고드는 대중문학을 대하면서, 우리는 그림에도 불구하고 잘 ‘팔린’ ‘상품’이 아니라 잘 ‘씌어진’ ‘작품’을 고르는 안목을 꾸준히 견지해야 할 것이다. 휴식과 소비로서의 문학이라는 후기 근대의 가장 첨예한 대중적 형식을 띠는 ‘대중적 서정시’의 양가성은 바로 이러한 곳에 있다.

우리가 잘 알듯이, ‘베스트셀러’라는 말은 1897년 미국의 월간 문예잡지 『북맨(Bookman)』이 전국적으로 잘 팔리는 서적을 조사 발표하면서 사용하기 시작한 용어이다. 당시에는 ‘베스트 셀링 북스(best selling books)’

라고 하였던 것이 '베스트셀러'라고 축약되어 불리면서 점차 전 세계로 보급되어 1920년대에는 국제적인 공용어로 정착되었다. 사실 '베스트셀러'란 직역해보면 '가장 잘 파는 사람'이라는 뜻인데 지금은 이것이 전화되어 '잘 팔리는 책'의 뜻으로 사용되고 있다. 우리가 잘 알듯이, '베스트셀러'라는 기호는 대중적 욕망과 자본의 부가 가치 욕망이 결합되어 그 효과가 나타난다. 따라서 우리는 베스트셀러가 한 사회의 중요한 지식 지수(指數)를 드러내는 것이자 한 사회의 대중적 욕망을 소비시키는 일종의 상품적 표지(標識)임을 잘 알고 있다. 그러므로 서점이나 출판사에서 공인하는 베스트셀러는 그 용어 자체만으로 확대 재생산의 사회적 파급 효과를 가지는 기호로 작용하게 된다.

물을 것도 없이, 베스트셀러가 모두 베스트 복일 수는 없다. 광고와 상업주의에 의해 만들어진 베스트셀러는 양적으로 많이 팔린 책일 뿐 질적으로까지 독자에게 인정받은 책이라 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베스트셀러가 모두 패스트셀러라고 할 수 있는 것만도 아니다. 장기간 꾸준히 사랑을 받으며 팔린 스테디셀러가 있기 때문이다. 스테디셀러란 말 그대로 꾸준히 계속 사랑받은 책을 말하는데, 예를 들어 지금도 필독서로 손꼽히고 있는 박경리의 『토지』나 조세희의 『난장이가 쏘아올린 작은 공』 같은 예가 이에 해당한다. 박경리의 『토지』는 해방 후 씌어진 가장 뛰어난 작품으로 손꼽히고 있고, 『난장이가 쏘아올린 작은 공』은 100년 동안 제일 잘 씌어진 책으로 논자들 사이에서 선정된 바 있다.

우리가 살피려는 류시화의 모든 텍스트 역시 이 같은 범주를 아주 충실하게 충족하고 있다. 그의 언어는 대중적 욕망과 자본의 부가 가치 욕망이 결합된 이 시대의 베스트셀러이자, 대중들을 항구적으로 흡인하고 있는 스테디셀러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이러한 류시화 대중성의 축을 '의사 종교성'과 '사랑의 시학'에서 찾아보고자 한다.

## 2. 류시화 문학의 의사 종교성

잘 알려져 있듯이 그의 본명은 안재찬이다. 그는 1980년 『한국일보』 신춘문예로 등단하여 ‘시운동’ 동인으로 활발한 활동을 벌이다가 문단에서 사라진 뒤, 돌연 ‘번역가’와 ‘구도자’라는 이중의 캐릭터를 가지고 문단으로 화려하게 귀환했다. 물론 그의 이름을 대중들의 뇌리에 각인한 것은 ‘시’ 쪽이 아니라 ‘번역’과 ‘구도(求道)’ 쪽이었다. 그 첫 신호는 『성자가 된 청소부』(1988)였는데, 이 책은 류시화를 명상 서적 번역가로 단호하게 등극시켰다. 이 책 속에는 청소부로 태어나 성자가 된 사람, 감자 농사를 짓다가 생의 집착에서 벗어난 사람, 온갖 역경을 거쳐 비로소 자기 내면에 신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깨달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수록되어 있다. 이런 사람들의 이야기가 바바 하리 다스 특유의 미사여구 없는 평범한 문체, 단순한 구성으로 형상화되어 있어 읽는 이들이 인생의 진리를 깨닫고 주어진 삶을 되돌아볼 수 있도록 꾸며져 있다. 독자들은 이때 바바 하리 다스와 류시화를 등가의 언어로 기억하기 시작하였다. 또한 이어 출간된 시집 『그대가 곁에 있어도 그대가 그림자』(1991)와 『외눈박이 물고기의 사랑』(1996), 『지금 알고 있는 걸 그때도 알았더라면』(1998)은 그를 시인 ‘안재찬’에서 시인 ‘류시화’로 확연하게 변화시킨 구체적 물증이였다. 이러한 종교적 구도와 시적 아우라를 결합하여 그는 『하늘 호수로 떠난 여행』(1997)으로 집약해낸다. 그런 그의 필치는 최근 ‘인디언의 방식으로 세상을 사는 법’이라는 부제를 거느린 『나는 왜 너가 아니고 나인가』(2003)로 이어진다. 이 책에는 그의 문학적 주제가 깊이 응집되어 있다.

부제에서도 적극 암시하고 있듯이, 이 책은 자연과 우주마저 문명의 타자로 몰아붙인 채 일방적으로 질주해온 근대 서구 문명의 폭력성에



대하여 ‘인디언의 방식’으로 비판하고 있다. 말하자면 이 책 안에는 우주의 침묵과 빛으로 마음을 가득 채우면서, 그리고 대지에서 삶의 모든 것을 배우면서 살아온 인디언들의 삶의 지혜와 충만한 영혼이 담겨 있다. 또한 문명에 의해 세계사의 주류로부터 소멸해가면서도 당당함과 자부심을 잃지 않는 인디언들의 슬프고도 아름다운 목소리가 감동 깊게 펼쳐져 있다. 말할 것도 없이, 최근 우리 사회에서 최후의 윤리학이자 가장 급진적인 대안으로 대두한 바 있는 생태적 사유와도 이 책은 깊이 관련되어 있다. 그만큼 ‘인디언의 방식’이란, 자연을 ‘신성한 것’(the sacred)이 깃들인 생명체로 인정하지 않고 인간의 욕망 실현을 위한 ‘자원’으로만 생각해온 근대 문명의 자기 증식 논리에 대한 철저한 반성의 시선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근본주의적인 생태적 사유와 그 실천은, 치유 불가능의 단계에 빠져 버린 생태적 위기와 맞물리면서 지상의 윤리 차원을 넘어서 일종의 ‘우주적 연민’(cosmic pity)으로 확산되어가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책의 외관으로 볼 때, 우리는 류시화의 언어가 문명의 반대편에서 들려오는 우주의 신성한 목소리 그리고 침묵과 빛으로 가득찬 인류의 근원적 흔적들을 통해 들려온다는 사실과 만나게 된다. 이는 달라 이라마가 “욕망의 반대말은 무욕(無慾)이 아니라 만족할 줄 아는 지혜”라고 말한 것과도 상통하면서, 욕망의 과부하에 지쳐 있는 우리들에게 매우 근본적인 삶의 전회(轉回)를 요구해온다. ‘인디언의 방식’으로 보면 문명의 창조는 한갓 철없는 파괴일 뿐이고, 인류 역사는 ‘신성한 것’으로부터 점점 멀어져간 자기 망각의 시간인 것인데, 이러한 메시지는 법정(法頂)의 『무소유』 계보를 잇는 일종의 의사(擬似) 종교적 언어의 속성으로 가득하다고 할 수 있다.

또한 류시화가 전해주는 인디언의 언어는 일종의 잠언(箴言)에 가까

워진다. 그 잠언들은 문명을 자랑하면서도 동시에 그 문명에 의해 파괴되어가는 “얼굴 흰 형제들”의 허울을 비판한다. 그래서 그들의 목소리에는 자신들의 세계와 생명의 근원인 대지가 여지없이 파괴되는 것을 지켜보는 “얼굴 붉은 사람들”의 슬픔과 지혜, 그리고 비굴하지 않은 당당한 종말이 담겨 있다. 잘 알려져 있듯이, ‘잠언(aphorism)’은 사람이 살아가는 데 교훈과 경계가 되는 짧은 양식으로서 대개는 평이한 언어와 시적인 직관에 의해 씌어진다. 그래서 우리가 잠언을 읽는 것은, 커다란 우주적 섭리나 진실에 순간적으로 동참하는 일이 되기도 하고, 자신의 생각과 삶에 새로운 탄력을 부여하는 신생의 작업이 되기도 한다. 이러한 ‘동참’과 ‘신생’의 감각은, 일정한 지속성과 구체성을 가지고 삶의 구석구석을 규율한다기보다는, 나날의 삶이 가질 법한 무의미함과 순환성에 일종의 인지적·정서적 충격을 가함으로써 자신을 반성적으로 바라보고 생각하고 치유해갈 수 있는 창조적 에너지를 부여하는 데 그 의의가 있다. 『지금 알고 있는 걸 그때도 알았더라면』과 『나는 왜 너가 아니고 나인가』에 깃들여 있는 류시화의 잠언들은, 이러한 인지적·정서적 충격 가운데 인생론적 긍정과 무소유의 행복 그리고 생명체로서의 깨달음을 암시하는 명상 언어들이 주를 이루고 있다. 이러한 긍정적이고 화해적이며 우주 친화적인 표현들을 통해 그는 복합성보다는 단순성, 갈등보다는 화해, 부정적 의식보다는 긍정적 의식을 강조해마지 않는다. 그래서 비록 갈등을 유발할 수 있는 상황을 배경으로 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사회적·제도적으로 갱신하려 하기보다는 의지나 시선의 변화를 통해 문제를 단순하고 명료하게 그것도 내면적으로 해결할 것을 강조하는 경우가 많아진다. 류시화의 언어가 구체성보다는 원초적 친화와 ‘신성한 것’으로의 초월을 욕망하는 의사 종교성의 언어임이 여기서 또 한 번 입증된다.

이처럼 인류사의 뒤편길로 소멸되어간 인디언들의 충만한 영혼과 언어들은 류시화의 언어 속에서 다시 신성한 숲을 거닌다. “대지를 잘 돌 보라. 우리는 대지를 조상들로부터 물려받은 것이 아니다. 우리의 아이들로부터 잠시 빌린 것이다.”라는 오래된 인디언 격언처럼, 이들은 우리의 기억 속에서 적게 말하고, 많이 듣고, 온몸을 열어 보인다. 이 점에서 책의 중간 부분에 위치한 포타와토미 족 메데아의 『말과 침묵』과 오글라라 라코타 족 붉은 구름의 『나는 왜 너가 아니고 나인가』는 이 책의 순금의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그들은 이렇게 말한다. “우리는 곧 이 대지를 떠날 것이지만 대지 자체는 영원하다. 우리가 그 영원함을 파괴해서는 안 된다. 마음을 다해 작별 인사를 남기는 바이다.”(『나는 왜 너가 아니고 나인가』) 책의 마지막 장에서 영국인 화가인 조지 캐틀린이 남겨준 다음과 같은 증언은 이들의 비극적 아우라를 더욱 선명하게 만들면서, 그들이 남긴 소멸의 흔적을 더욱 신성한 것으로 만들고 있다.

나는 보았다. 인디언들이 자신들의 천막과 아버지들의 무덤이 있는 평원에 불을 놓고 마지막으로 자신들의 사냥터를 바라본 뒤, 말없이 손으로 입을 가린 채 슬픈 얼굴을 돌려 헤지는 쪽으로 돌아서는 모습을. 그 모든 것이 자연의 침묵 속에서 위엄 있게 행해지는 모습을

그 황혼녘의 성스러움과 비극성이, ‘강한 미국’으로 대표되는 또 다른 야만(野蠻)의 폭력성을 끝없이 왜소하게 만들고 있다. 그들이 남긴 신성한 아름다움은 이렇듯 사라져감으로써 불멸로 남는다. 그 불멸의 힘이 바로 종교적 욕망의 형식인 것이다.

그렇다면 이 같은 외관을 가진 류시화 텍스트의 매혹적 힘은 어디서 오는가? 가장 커다란 까닭은 그가 전해주는 특유의 삶에 대한 따스한 긍정과 희망의 메시지에서 찾을 수 있다. 그의 잠언에는 비록 지금은 누추

하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넘어 새로운 존재로 태어날 수 있다는 초월과 위안의 미학이 지배적 주제로 드러난다. 이러한 주제는 독자들의 교양 욕구를 충족시키면서 일종의 화해의 세계관을 형성하게 되는데, 이것은 그들에게 매우 독특한 의사 종교적(pseudo-religious) 효과가 있게 된다. 명료하고 투명한 역리(逆理)를 통해 독자들의 삶이 가지는 병리적 상황을 진단해주고 그것을 위무하고 치유하고자 하는 그의 언어는, 자신도 이미 해답을 알고는 있지만 큰 타자에게 그것을 확인받고 동시에 위안 받으려는 대중들의 보편적인 종교적 욕망과 친밀하게 부합한다.

또 하나 다른 까닭은 그의 언어가 계층과 성별과 이념의 편차를 떠나 살아 있는 모든 생명을 향하고 있다는 점에 있다. 그래서 그의 언어는 세계내적 존재들이 필연적으로 겪는 계층적, 이념적 갈등들을 짐짓 모른 채함으로써, 다시 말하면 사회적 상황을 자신의 언어 속에서 배제함으로써 읽는 이들의 입장 차이에 따라 생길 수 있는 불편함을 일순간에 제거한다. 만약 그가 외국인 노동자라든가, 장애인, 혼혈인, 성적 소수자 등 사회적 마이너리티들에 대해 발언했다 해도 이 같은 폭발적 대중성이 확보되었을까? 아닐 것이다. 그랬다면 그는 많은 독자들을 잃어버리는 동시에 종교 지성의 언어를 갈망했던 정예적 소수를 독자로 가지게 되었을 것이다. 하지만 그는 그 같은 갈등들의 매듭을 자신의 문장 안에서 풀거나 매지 않는다. 다양한 해석과 판단이 가능한 분기점에서 그는 부드럽게 멈춰 있을 뿐이고, 살아 있는 모든 것을 보편성의 이름으로 만나고 있을 뿐이다.

이처럼 그의 잠언들은 모든 중생을 잠재적 청자로 삼음으로써 우리 사회의 구체적 마이너리티를 옹호하는 일련의 논리와는 다른 곳에 자신의 의사 종교적 언어를 풀어놓는다. 하지만 이러한 원형적 보편성의 언어는, 역설적으로, 사회 규범의 요구와 긍정적으로 화해하는 사회 통합

기능을 수행한다. 따라서 그의 언어에는 속악하게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정신적 치유와 깨달음을 주는 의사 종교적 기능을 수행하는 측면과, 구체적 타자들을 못 생명의 범주 속에 포괄함으로써 보편성의 언어로 나아가는 측면이 동시에 존재하는 것이다. 이러한 의사 종교성이 류시화 잡언이 대중 속으로 아득하게 퍼져갈 수 있었던 제일의 비밀일 것이다.

### 3. '사랑의 시학'의 대중적 속성

인류의 가장 고전적인 관심 가운데 하나인 '사랑'은 인간의 역사 이래 가장 유구한 문제적 개념으로서의 역사를 가지고 있다. 고전적 쟁점일 수록 사실은 그것이 여전히 미해결의 과제임을 말하는 것이라면, '사랑' 역시 지속적인 우리의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는 개념이 아닐 수 없다. 물론 사랑 역시도 인간이 가지는 고유한 욕망의 한 형식이다. 또한 근본적으로 충족 불가능한 인간 욕망의 성격에 비추어 생각해보면, 그것은 우리의 일상과 감각을 엮어매고 있는 자기 소모적 파토스일 뿐이다. 이러한 사랑의 복합적인 심리적, 정서적, 물리적 실체성은 후발 과학인 심리학에 의해 폭넓게 탐색되고 있는데, 그것은 사랑이 아주 개인적인 문제이기는 하지만, 사회적 또는 문화적 상황을 반영하는 사회 문화적 형식임을 증명해주고 있다. 곧 사랑은 인간 내면의 정서이자 사회 심리학적 현상이기도 하다는 것이다.

이러한 복합적이고 자기 모순적인 사랑을 정서 및 이야기의 차원에서 다루고 그것을 주음으로 삼는 것이 바로 문학이다. 우리가 문학이라는 창작적 결과물을 읽고 그 세계를 전유하려는 까닭의 저변에는 자기 동일시라는 상상적 체험에 대한 열망이 깔려 있다. 특별히 서정시의 경우

그와 같은 자기 확인 욕구는 더욱 전면적일 수밖에 없는데, 동화(同化)와 투사(投射)의 심리가 서정시 독법의 원리를 구성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 인간이 서로 간에 공유하는 정서적, 의지적 지향 중에 가장 중요하고도 본질적인 것이 '사랑'이라면, 사랑을 주제로 한 서정시에 우리의 관심이 향한다는 것은 그리 부자연스런 일이 아닐 것이다. 류시화 대중성의 비밀은 이 같은 '사랑의 시학'에 깃들여 있다.

바다의 깊이를 재기 위해  
바다로 내려간  
소금인형처럼  
당신의 깊이를 재기 위해  
당신의 피 속으로  
뛰어든  
나는  
소금인형처럼  
흔적도 없이  
녹아 버렸네  
— 「소금인형」 전문

이 작품에는 사랑과 헌신 그리고 희생과 소멸이라는 절대 사랑의 형상이 녹아 있다. 그 점에서 사랑은 사회 심리적 현상을 배제하고 단연 초월성과 불멸의 동일성으로 시편 안에 구현된다. 여기서 '소금인형'과 '바다'는 고스란히 '나'와 '당신'의 유비(analogy)를 이룬다. '소금인형'이 '바다'의 깊이를 재기 위해 그 속으로 들어갔듯이, '나'는 '당신'의 피 속으로 뛰어든다. 그러니 바닷물에 '소금인형'이 흔적도 없이 녹아버렸듯이, '나' 역시 당신의 피 속에서 녹아버린 것이다. 이러한 투사와 동화를 동반한 헌신과 소멸의 사랑이야말로, 인간과 신성(神聖)의 그것을 그대로 비유한 것이 아닌가. 또한 이는 구체성을 사상(捨象)한 '관념'으로서의

사랑'이라고 명명할 수도 있을 것이다. 우리가 '사랑'이라는 시니피앙의 풍요 속에 진정한 의미에서의 '사랑'에 대한 빈곤감을 느낄 때, 이러한 헌신과 소멸로서의 사랑에 대한 강한 향수도 이 작품의 대중적 흡인력을 설명할 수 있는 하나의 요인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처럼 류시화의 연애 시편들은 대부분의 대중문학들이 견지하는 가벼움과 교양물들이 지니는 무거움 사이를 곡예하듯 이슬이슬한 균형을 유지하며 통과한다. 이후 펼쳐지는 그의 대부분의 베스트셀러 목록들은 한결같이 이러한 연애시의 문법과 속성을 고스란히 함유하고 있고 또 그것을 심미적으로 복제한다. 그러나 눈여겨보아야 할 것은, 이러한 류시화의 '사랑의 시학' 역시 사적(私的) 차원의 연애에서 종교적 차원의 명상과 초월로 탈바꿈되고 있다는 점이다.

내 안에 있는 이여  
내 안에서 나를 흔드는 이여  
물처럼 하늘처럼 내 깊은 곳으로 흘러  
은밀한 내 꿈과 만나는 이여  
그대가 곁에 있어도  
나는 그대가 그림자  
— 「그대가 곁에 있어도 나는 그대가 그림자」 전문

'소금인형'이 바다의 '안'으로 뛰어들었듯이, 여기서도 '안'이라는 공간이 제시된다. 내 안에 있어 나를 흔들고 내 깊은 곳으로 흘러 은밀한 내 꿈과 만나는 이는, 바로 「소금인형」의 '당신'과 한 몸으로 결속한다. 그만큼 그 존재는 신성하고도 초월적인 속성을 띤다. 그러니 그 존재는 '곁'에 있어서는 의미가 없다. 왜냐하면 궁극적인 그대는 내 곁이 아니라 내 '안'에서 은밀한 꿈을 항구적으로 꿀 테니까 말이다. 이러한 그의 언어는 불멸의 그리움이라는 연애시의 문법을 한껏 충족시키지만, 합일의

순간에서 오히려 소멸에 이르게 되는 극적 사랑을 보여줌으로써 종교적 속성을 점증(漸增)시키고 있는 것이다. 그 점에서 류시화 시편은 '시적 언어'가 아니라 '종교적 언어'이다.

우리는 보통 '사랑에 빠진다(falling in love)'라고 말한다. 그러나 일찍이 프롬은 사랑은 빠지는 것이 아니라 참여하는 것이라고 갈파하였다. 사랑이란 수동적인 정동(passive affect)이 아니라 능동적인 활동(active activity)이라는 것을 강조한 것이다. 이 점에 비추어본다면, 류시화의 시는 사랑의 능동성보다는 운명적 현신을 강조하는 종교적 모티프를 닮았다고 할 것이다. 그의 생태적 사유와 보편적 가르침의 잠언들 그리고 사랑의 시편들은 결국 한 몸임을 우리는 경험하게 되는 것이다.

나무에 대한 시를 쓰려면 먼저  
눈을 감고  
나무가 되어야지  
너의 전생애가 나무처럼 흔들려야지  
해질녘 나무의 노래를  
나무 위에 날아와 앉는  
세상의 모든 새를  
너 자신처럼 느껴야지  
네가 외로울 때마다  
이 세상 어딘가에  
너의 나무가 서 있다는 걸  
잊지 말아야지  
그리하여 외로움이 너의 그림자만큼 길어질 때  
해질녘 너의 그림자가 그 나무에 가 닿을 때  
넌 비로소 나무에 대해 말해야지  
그러나 언제나 삶에 대해 말해야지  
그 어떤 것도 말고  
— 「나무의 시」 전문



이 시편에서도 ‘나무’와 ‘너’의 투사와 동화가 권면되고 있다. 그에게는 ‘시’라는 언어 양식은 나무 되기를 통해서만 가능해지는 것이다. 이 선명하기 짝이 없는 ‘성육(incarnation)’의 원리는 “해질녘 나무의 노래를/나무 위에 날아와 앉는/세상의 모든 새를/너 자신처럼 느껴야” 하는 구도자의 생애를 닮아 있다. “네가 외로울 때마다/이 세상 어딘가에/너의 나무가 서 있다는 걸”로 보아서, 이 역시 연애시의 문법을 충실하게 따르고 있다. 그 사랑이 완성될 때 비로소 나무에 대해 삶에 대해 말하는 ‘시’가 가능할 것이다. 그래서 이 작품은 그의 시편들이 얼마나 의사 종교적 욕망으로 가득한가를 알려주는 일종의 메타 시편이 될 것이다.

또한 류시화 시편의 대중성은 『그대가 곁에 있어도 그대가 그림자』와 『외눈박이 물고기의 사랑』이 보여주는 이미지의 친숙성에서도 찾아진다. 인식과 위안과 깨달음으로서의 독서에 그만한 보증 수표가 어디 있겠는가. 대중들은 낯설게 다가오는 새로운 담론보다는 익숙한 것의 재확인을 선호하고 그러한 언어에 안도한다. 그 점에서 그가 일관되게 보여주는 명상과 구도의 몸짓, 근원과 궁극을 추구하는 꿈의 언어, 절충적 교양주의 등은 대중을 흡인하는 가장 중요한 원동력이 되는 것이다. 하지만, 어떻게 생각하면, 우리 시대가 또 다른 계몽이 절실하게 요구된다는 점에서 그의 언어는 바로 그 근대에 대한 역(逆)계몽의 핵심에 닿아 있다고도 할 수 있다. 어디나 편재(遍在)해 있는 ‘당신’의 목소리와 숨결과 힘과 지혜를 통해 ‘신성한 것’의 자기 표현을 번역해 들려주기도 하고, “저 노을이 지듯이 내 목숨이 사라질 때/내 혼이 부끄럼 없이 당신에게 갈 수 있게 하소서”(『나는 왜 너가 아니고 나인가』)라는 신성과의 합일을 열망하는 세계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의 독서경험을 통해 보건대 사랑의 고전들, 이를테면 셰익스피어의 비극 『로미오와 줄리엣』이나 괴테의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 포의

서정시 『애너벨 리』 등은 모두 이루지 못한 사랑으로 우리의 뇌리에 깊이 각인되어 있다. 다시 말해 그들의 사랑이 제도적으로 승인되기보다는 운명이나 불가항력적인 타자의 개입으로 인해 소멸 또는 유보되는 것이 연애문학의 정수로 남아 있는 것이다. 우리는 이 같은 현상적 질서에 비추어 왜 사랑의 결여태가 완성형보다 더 비극미와 감동 나아가 예술적 동일시와 카타르시스를 더욱 증폭시키는가를 질문할 수 있다. 또한 우리가 일상에서 가장 많이 체감적으로 접하고 있는 대중가요의 가사들이 가지고 있는 정황들이 하나같이 이러한 연애시의 문법을 견고하게 지향하고 있는 것 또한 그와 같은 비극성의 대중성에 대한 유력한 알리바이가 될 것이다. 따라서 류시화의 사랑 시편들은 이 같은 비극적 정황에 처해 있는 근대적 개인들을 위무하고 그들에게 삶의 활력을 역설적으로 불어넣어주는 효용성을 띠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이와 같은 ‘사랑시’는 어떠한 유통 회로를 거느리는가. 그것은 당연하게도 상실감과 그리움을 정서적으로 공유하는 이들에 의한 광범위한 묵계에 의해 창작되고 유통되고 소비된다. 이것이 연애시의 대중적 전파력을 보장해주는 일차적 원인이다. 이름하여 ‘망부가(望夫/婦歌)’나 ‘실연가(失戀歌)’는 그 중의 대표적 형식일 것이다. 또한 ‘순애보(殉愛譜)’라든가 하는 절절한 마음을 담은 애절한 노래들 역시 그 대부분의 자리를 차지한다. 시적 사유는 본질적으로 ‘나-너’의 관계를 강조<sup>3)</sup> 하지만, 근대적 연애시는 주체와 타자간의 근원적으로 합일될 수 없는

3) Martin Buber(김천배 역), 『나와 너』, 대한기독교서회, 1983. 11-53면. 참조. 여기서 부버는 근원어를 두 가지로 설명하고 있는데, ‘나-너(Ich-Du)’와 ‘나-그것(Ich-Es)’이 그것들이다. ‘나-너’는 존재의 전체를 바쳐서만 이를 말할 수가 있다고 말하는 부버는, ‘나’라는 것은 타자와의 관계 속에서만 존재 가능성을 두 개의 근원어로 설명하고 있다. 그리고 휠라이트는 ‘나-너’의 개념을 시적 사유에 적용하고 있다. Philip Wheelwright, *The Burning Fountain*, Indiana University Press, 1959. 80쪽. 참조.

존재론적 단층의식이 기본 구도를 이루고 있다는 것 또한 우리가 이미 강조한 바이다. 사랑은 근본적으로 비논리성이나 배타성 또는 유아론(唯我論)적 성격을 그 핵심적 성격으로 한다. 그런가 하면 존재 관념보다는 소유 관념에 집착하는 정서적 지향성을 가지고 있기도 하다. 그러나 성숙된 사랑이란 자신의 통합성(integrity)을 유지하는 조건하에서 이루어지는 결합이기 때문에 “둘이 하나가 되면서도 여전히 둘인 상태로 남아 있는 것”이라는 역설을 성립시킨다.<sup>4)</sup> 따라서 살아있는 생명체로서의 존재 증명에 사랑보다 더 명징한 것은 없다. 우리가 단테의 『신곡(神曲)』에서 처음으로 베아트릭체를 보았을 때 “나의 삶은 새로워졌다”고 한 경이의 순간을 사랑이라는 에너지 말고는 설명할 길이 없다. 이러한 사랑의 속성을 노래한 류시화 사랑 시편들은 연면한 지속성을 띠면서 전개될 것으로 보인다.

#### 4. 대중문학과 류시화

잘 알다시피, 류시화는 광범위한 독자들을 얻은 대신에 비평가와 매체를 잃어버린 우리 시대의 대표적인 사례일 것이다. 우리는 여기서 대중문학의 예술적 가능성을 그 내적 구조로부터 통찰해내는 카웰티의 시각<sup>5)</sup>을 유력하게 참조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는 대중소설에 흐르는 율형으로서의 도식성과 그 구체적 실현으로서의 작품의 개별성의 관계를 천착함으로써 대중문학의 예술적 성취를 가늠할 수 있다고 보고 있

4) Erich Fromm(김진욱 역), 『사랑의 기술』, 서음출판사, 1989. 23쪽.

5) J. G. 카웰티, 『도식성과 현실도피의 문화』, 박성봉 편역, 『대중예술의 이론들』, 동연, 1994. 참조.

다. 그는 대중문학의 예술적 가능성을 홀시한 점, 본격문학의 기준으로 대중문학을 비난하는 관행, 대중문학이 문학으로서의 자율성을 가진다는 점의 외면, 대중문학을 삶의 총체적인 맥락으로부터 단절시킨 점 등을 반성하면서, 우리의 삶과 사회 또는 내면에 복잡하게 얽혀 있는 이중 또는 다중의 면모와 대중문학이라는 코드가 만나는 지점에 대한 성찰을 제안하고 있다. 일탈 욕구와 안정 욕구의 갈등 사이에서 “놀이 상태에서는 갈등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피아제의 말을 상기시키면서, 대중문학의 현실 도피 체험의 예술적 가능성을 암시해주는 현실적 기반을 제공한다.<sup>6)</sup> 말하자면 일종의 ‘낮익게하기’의 미학적 전제를 승인하고 있는 셈이다.

결국 대중문학은 인간의 삶과 사회 구조를 전체성의 차원에서 사유하는 높은 이상을 염두에 둘 때 적실한 개념적 틀이 될 수 없다. 또한 대중문학이 대중적 욕망에 호소하여 획득해낸 베스트셀러의 지위 역시, 그 자체가 삶의 파편성, 우연성, 일상성, 운명 같은 추상적 의미들에 관심을 할애하고 있기 때문에 문학이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좌표와는 거리가 멀다. 류시화 문학의 가장 원초적이고 궁극적인 지점은 이러한 코드들과 친밀하게 접속하고 그것을 재생산한다. 그 점에서 우리는 그의 언어가 성장에 대한 몰신 숭배야말로 우리의 저항 대상이며, 실존적 개인이야

6) 결국 카엘티가 내리는 대중문학과 문화와의 상관성은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1) 대중문학은 기왕의 가치와 입장을 확인하는 방향으로 자신의 세계를 전개한다. 종래의 관습적인 세계관에 동조함으로써 대중문학은 사회의 질서와 윤리에 관한 지배적 동의를 확인한다. (2) 대중문학은 한편으로는 사회의 구성 집단들 간의 상충되는 이해관계와 다른 한편으로는 개인 내부의 가치관의 혼돈에서 비롯되는 긴장과 갈등에 가상의 해결을 제공한다. (3) 대중문학은 일상적 삶에서 대부분의 독자들에게 금지되어 온 영역을 통제된 방식으로나마 조심스럽게 답사할 수 있는 기회를 가상의 세계를 통해 제공한다. (4) 대중문학은 새로운 문학적 실험을 강력하게 자신의 전통적인 도식성의 세계로 끌어들인다. 이런 방식으로 대중문학은 사물을 보는 전통적 시각과 혁신적 시각 사이의 마찰을 원활하게 하여 문화적 안정을 추구한다. 위의 글, 106-107쪽.

말로 궁극적 단위가 된다는 사실을 재확인하는 세계라는 해석을 내릴 수 있다. 마치 꿈의 세계로 진입하는 것을 “고통과 억압에 대한 영원한 투쟁의 표현”<sup>7)</sup>으로 보는 시각 같은 것이 여전히 그의 존재 의의를 세워 줄 것이다. 그리고 그에 대한 논리적, 미학적 탐색을 끊임없이 요청할 것이다. 이러한 시각은 류시화 언어의 시작과 끝, 한없는 심화와 변형의 세계를 읽어내는 데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할 것이다.

---

7) H. 마르쿠제, 김인환 역, 『에로스야 문명』, 나남, 1989. 46쪽.

## 참고문헌

### 1. 기본자료

- 류시화, 『그대가 곁에 있어도 그대가 그림자』, 푸른숲, 1991.  
\_\_\_\_\_, 『외눈박이 물고기의 사랑』, 열림원, 1996.  
\_\_\_\_\_, 『하늘 호수로 떠난 여행』, 열림원, 1997.  
\_\_\_\_\_, 『지금 알고 있는 걸 그때도 알았더라면』, 열림원, 1998.  
\_\_\_\_\_, 『나는 왜 너가 아니고 나인가』, 김영사, 2003.  
\_\_\_\_\_, 『나의 상처는 돌 너의 상처는 꽃』, 문학의 숲, 2012.

### 2. 단행본 및 논문

- 김창식, 『문화연구와 대중문학』, 『한국문학논총』 23집, 한국문학회, 1998, 329-345쪽.  
김현, 『대중문화 속의 한국문학』, 『한국의 대중문화』, 나남, 1987.  
대중문학연구회 편, 『대중문학이란 무엇인가』, 평민사, 1995.  
박성봉, 『대중예술 비평을 위하여』, 박성봉 편역, 『대중예술의 이론들』, 동연, 1994.  
오생근, 『대중문학이란 무엇인가』, 김현 외 편, 『문학이란 무엇인가』, 문학과지성사, 1984.  
유성호, 『한국 현대사의 형상과 논리』, 국학자료원, 1997.  
유성호, 『대중문학 연구의 과제와 전망』, 『한국문학논총』 25집, 한국문학회, 1999, 97-116쪽.  
유중호, 『문학이란 무엇인가』, 민음사, 1989.  
임성래, 『조선후기의 대중소설』, 태학사, 1985.  
임성래, 『대중문학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대중문학연구회 편, 『대중문학이란 무엇인가』, 평민사, 1995.  
조성면, 『한국근대대중소설비평론』, 태학사, 1997.  
E. Fromm(김진욱 역), 『사랑의 기술』, 서음출판사, 1989.  
H. 마르쿠제(김인환 역), 『에로스 and 문명』, 나남, 1989.  
J. G. 카엘티, 『도식성과 현실도피의 문화』, 박성봉 편역, 『대중예술의 이론들』, 동연, 1994.  
M. Buber(김천배 역), 『나와 너』, 대한기독교서회, 1983.

## Abstract

### A Characteristics of Popular Literature in Ryu Si-hwa's Poetry

Yoo, Sung-Ho(Hanyang University)

Two axes supporting popular appeal of Ryu Si-hwa's poetry are 'pseudo religiosity' and 'poetics of love.' Combining religious seeking for truth and poetic aura, he emphasizes simplicity than complexity, reconciliation than conflict and positive consciousness than negative consciousness. Therefore, though his poems describe the situation causing conflicts, he stresses that we should solve them simply and clearly, even internally by changing our will or attention rather than socially renewing them. As much, his poetic language is the language of pseudo religiosity desiring transcendence to primitive affinity and sacred one. In terms of diagnosing pathological situations and consoling and curing them through clear and transparent paradox, his language closely accords with universal religious desire of the public who want the other to confirm the answer they already know and to comfort them. Also, the secret of Ryu Si-hwa's popularity is in poetics of love. A strong nostalgia toward love as dedication and extinction constitutes such popular appeal. Narrowly keeping a balance as in acrobatics, love poems of Ryu pass through lightness most popular literature are adhering to and heaviness of books for cultured reading. From then on, most of his bestseller books contain the grammar and characteristics of love poem and aesthetically reproduce them. His poetics of love also consistently transforms from love of individual level to meditation religious level. In this respect, Ryu Si-hwa's poems are not 'a poetic language' but 'a religious language.'

(Key words : Ryu Si-hwa, pseudo religiosity, love, popularity(popular appeal), religious language)

투고일 : 2013년 4월 28일 투고  
심사일 : 2013년 5월 13-24일 심사  
수정보완일 : 2013년 6월 3일 수정제출  
계재확정일 : 2013년 6월 10일 게재확정

